

함께 금강경 읽으니 즐겁지 아니한가

일감 스님, 21일

<금강경 읽는 즐거움> 북콘서트

<금강경(金剛經)>은 불자가 아니라도 불교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한 번은 접한 경전으로 대승불교 경전 중 가장 대중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그만큼 이에 대한 해설서는 이미 많이 발간됐다.

조계종 기획실장 일감 스님이 발간한 <금강경 읽는 즐거움> 북콘서트를 사유와 성찰, 소통이 함께 하는 자리였다.

8월 21일 오후 7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공연장에서 열린 일감 스님의 <금강경을 읽는 즐거움> 북콘서트도 사유와 성찰, 소통이 함께 하는 자리였다.

북콘서트는 일감 스님의 인사말로 시작했다. 일감 스님은 인사말에서 “부처를 찾아 산이나 법당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부처를 찾아야 한다. 그러면 가는 곳마다 부처를 만날 수 있다”면서 “<금강경>이 단순히 문자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했으면 한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북콘서트의 하이라이트는 이야기 손님들의 낭독이었다. 일감 스님의 도반과 주변 인연들이 무대에 올라 책의 구절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이야기했다. 청중들도 이야기 손님들의 말을 경청했다. 공감이 가는 부분에는 박수도 터져나왔다.

첫 무대는 BBS 불교방송 ‘툼비니 동산’의 진행자인 도운 스님이 맡았다. 도운 스님은 ‘제10 장엄정도분-바른 견해가 정도



조계종 기획실장 일감 스님의 첫 저서인 <금강경을 읽는 즐거움> 북 콘서트가 8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공연장에서 열렸다.

를 장엄함이나’의 주요 구절을 낭독하고 절 수행에 대해 이야기했다.

도운 스님은 “일감 스님이 진행하는 금강산사 ‘내비워 콘서트’에 갔다가 참가자들의 부탁으로 함께 3000배를 하기도 했다”면서 “108배, 1000배, 절을 하면서 참회의 마음을 갖는다. 그것도 좋지만,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다른 사람을 축원하면 더욱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행자시절부터 함께 해온 도반인 해인사 승가대학 학감 원창 스님은 ‘제6 정신회유분-바른 믿음은 귀한 일이다’를 바탕으로 계율의 실천에 대해 이야기를 풀었다.

원창 스님은 “경전에는 ‘계를 바르게 지키고 복을 닦는 자들은 깨끗한 믿음으로 들어간다(有持戒修福者)’고 했다”면서 “계를 지키는 것은 탐진치 삼독심을 버리는 것이

도반·주위 인연들, 직접 참여해

책 낭독하고 자기 생각 이야기

교리 실천·세월호·통일 등 ‘다채

대금·판소리 문화공연도 ‘눈길’

고 복을 닦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은 내려놓은 것이다. 자기 자신의 삼독심을 바로 보고 내가 소유한 것이 내 것이 아님을 안다면 무상의 법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함께 총무원 기획실 업무를 맡고 있는 기획국장 남전 스님은 책의 머리말을 소개하고 사유와 이해를 통해 경전을 읽고 실천할 것을 대중에게 당부했다.

남전 스님은 “흔히들 불교가 어렵다고 하는 데 삶의 입장에서 헤아리지 않고 단순히 외우고 수긍하려하기 때문”이라며 “이해되는만큼 알고 실천하며 부단히 공부에 매진한다면 스스로 나아짐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책 서두에 ‘역발상’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고정된, 편견을 깨뜨리는 반전과 역발상이 선(禪)의 모미’라면서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에서 ‘평’은 저울과 같다. 이 저울의 평행을 유지하는 것이 불교 공부”라고 말했다.

조미에 민족공동체추진본부 간사는 ‘제23 정심행정분-온 천지가 나다. 맑은 마음으로 좋은 일을 하라’의 해설을 낭독했다. 일감 스님은 책의 해당 부분에서 세월호 참사와 생명 가치에 대해 역설하고 있다. 이야기 손님인 조 간사도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조 간사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김조원, 이지혜 교사는 기간제라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승고한 희생도 직위와 돈에 따라 가치 판단을 받고 있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무엇이 소중한 가치인지 우리 스스로 되돌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정미 조계종 변호사는 전혀 연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사회법과 불법(佛法)의 상관 관계를, 박정규 교육원 교육팀장은 악화된 남북관계를 극복하기 위한 통일보살의 삶을 대중들에게 이야기 했다.

이와 함께 이날 북콘서트에는 오세경 작가와 소리꾼 최재구의 ‘금강경 판소리’, 이창선과 대금스타일의 공연과 이순호 사진작가와 함께 나누는 사진이야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도 진행됐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교계, 정부·서울시와 손잡고 자살예방 ‘앞장’

상담개발원, 9월 11일 자살예방 심리극, 추모제 등 ‘다채’

중양자살예방센터 사업 일환

심리극 관객 참여도 가능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소외감, 우울증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종종 접할 수 있다. 경제발전, 삶의 질 향상 등과 별개로 자살률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사상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 불교계가 나섰다. 직장문

제, 가정불화 등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의 정신적 고통을 함께 이해함으로써 삶의 가치를 일깨우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불교상담개발원(원장 도현, 이하 상담개발원)은 9월 11일 오후 5시 서울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서 심리극 및 퍼포먼스 ‘심리극을 통한 자살 이해-길’을 개최한다. 2015중양자살예방센터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생명살림 문화축제-러브테라피’ 사업의 일환으로 펼쳐지는 이번 행사는 박희석 심리학 박사

가 진행을 맡았다. 심리극은 연극을 통해 사람들의 사고와 감정을 표현해 하여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집단치유방법이다.

상담개발원이 준비한 이번 심리극에서는 한 때 사회에서 인정받으며 가부장적이던 이 시대의 아버지가 주인공으로 등장, 점차 가족과 직장에서 소외되다 결국 자살을 시도하는 모습을 극화했다. 주인공은 자살에 실패한 뒤 심리극에 참여하면서 그의 삶을 회고하고 잘못된 점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단기속성 3개월과정(48기)

본 대학에서는 일상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에 대한 교육을 실기와 병행하여 실시하며 다음과 같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 교육안내

- 개강일시 : 2015년 10월 7일 (수요일) 오후 3시 (목탁 치참)
- 교육시간 : 매주 수요일, 목요일 오후 3시~5시
- 교육장소 : 서울 본 대학 (위치 : 서울 조계사 근처)
- 통신교육 : 지방 거주자 (교재, 교육자료, 녹음CD 우송)

2. 교육내용

- ① 송 주 편 (도량석, 조석중성 등)
- ② 예 경 편 (상단예불, 조석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신중단 등)
- ③ 현 공 편 (삼보통청, 중단퇴공, 관음, 지장, 신중청, 각종 불공의식 등)
- ④ 재의식편 (천도제, 49제, 시다림, 기제사, 명절제사 등)
- ⑤ 시 식 편 (관음시식, 화엄시식, 상용영반, 구병시식, 방생의식 등)

3.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 접수 (우편, 팩스 접수 가능)
-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 지도함
- 필요에 따라 일부 범용법패를 병용해서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함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범패·작법무·의식과정 학인모집

아래와 같이 제12기 학인을 모집합니다.

- 범패·소리과정(6개월 과정 - 매주 목요일): 사십구제, 천도제 작법에 필요한 소리 및 사물(태징, 목탁, 북, 요령) 다루는법 사십구제·천도제·장엄 및 제사 준비등 전과정
- 작법·무용과정(6개월 과정 - 매주 목요일): 나비춤 - 사방요신, 다계작법, 도랑계작법 바라춤 - 오접바라, 관음계바라, 천수바라, 사다리나바라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범패·작법무 보유자 일초스님 직강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5호 인천수륙재 보유자

- 개강일시 : 2015년 9월 3일 (목요일) 오후 3시
- 모집인원 : 00명 (FAX 접수가능) ※ 본인 연락처 및 인적사항 필히 기재
- 접수기간 : 2015년 8월 ~ 2015년 8월 31일 까지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만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중과 교육원으로서 전통의식을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성적우수자는 심사를 통해 무형문화재 전수생으로 선정합니다. (수료증 포함)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범패·나비춤 보존회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5호 인천수륙재 보존회

부설 한국 불교 예술 대학

인천 남구 매소홀로 599(문학동 349-6) 인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202호
전화 : 032) 529-6708 FAX : 032) 529-6709
홈페이지 : http://www.bumpae.org 삼계종 http://www.samgyeojong.org

신행 · 포교 소식

청소년 불자들, 미국서 ‘꿈과 희망’ 찾다

한미청소년연수단, 8월 7일~18일 미 중·동부지역 순례 마쳐

청소년 불자들이 미국 중·동부 지역 등지를 순례하며 한국 불교 포교의 씨앗을 뿌리고 돌아왔다.

한미청소년불교문화연수단(단장 정범, 이하 한미청소년연수단)이 8월 7~18일 미중부 시카고를 비롯해 동부 지역 뉴욕, 워싱턴, 보스턴 등 연수를 진행했다. 조계종 포교원 국제전법단과 한국불교국제네트워크가 주최한 이번 연수단에는 청소년 및 자원봉사자 20명이 함께했다.

한미청소년연수단은 7일 시카고 불타사서 회주 현성 스님과 주지 성황 스

님 강의를 듣고 밀레니엄파크 및 시카고 미술관 등 견학했다. 이어 9일에는 뉴욕 불광선원으로 이동해 주지 휘광 스님 법문 아래 법회를 봉행했다.

특히 15~16일에는 미국 현지 청소년과 함께 게임, 장기자랑 뿐만 아니라 팬 하트 투박이 여행 등 진행하며 친목을 다지기도 했다. 단장 정범 스님은 “13년 전 뉴욕불광선원 청소년법회를 시작으로 한미청소년연수단이 매년 미국과 한국을 왕래하는 교류가 생겨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박익기 기자

새벽이슬 맞으며 ‘지계의 빛’ 밝히리

포교사단, 9월 5~6일 설악산 신홍사서 ‘무박 2일’ 수행 법회

매년 포교사 정체성 확립과 지계실천 덕목을 점검하기 위해 열린 팔계계수계 대법회가 올해도 찾아온다. 포교사단은 재가자가 출가자의 계를 단 하루만이라도 실천하며 포교사로서 기본자세를 정립하자는 의미로 팔계계수계대법회를 개최해 왔다.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광명희, 이하 포교사단)은 9월 5일~6일 설악산 신홍사서 제13차 8재계수계실천대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대법회에는 전국 12개 지역단서 약 3천여 포교사가 결집해 난타공연, 팔계계수계식, 독경 및 철야정진, 5km 촛불행진 등 무박 2일 일정을

함께한다.

특히 오후 11시 30분~새벽 3시에는 신묘장구대다라니 독송과 더불어 흔들 바위를 지나 계조암까지 촛불행진 수행기도를 진행한다.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는 내원 법당서 금강경 독송에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제20회 일반포교사 712명, 제8회 전문포교사 61명, 제20회 국제포교사 18명, 제8회 불교상담심리사 12명의 품수식도 함께 거행될 예정이다.

한편 오후불식으로 절약되는 비용은 신홍사 인근 지역사회 저소득층을 위한 기금 전달에 사용될 계획이다. 박익기 기자

환경부터 수행까지 불교로 살피다

정평불, 눈부처학교 3기 모집... 9월 1일 개강

환경문제부터 마음 수행까지 불교적 인 시각으로 살피는 강좌가 마련된다.

정의평화불교연대는 9월 1일~12월 30일까지 조계종 전법회관에서 ‘눈부처 학교’ 3기를 진행한다. 강의 주제는 스디지털시대, 불교의 지향점: 생명평화, 공유와 공동체 △한국불교를 돌아본다 △우리의 마음과 불교 윤리 등 3개로 나눠 18개 강의가 진행된다.

유정길 지혜공유협동조합 이사장은 환경위기에 대한 불교적 극복방안을 강의하며 서재영 불광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선(禪) 사상 안의 생명 사상을, 이도홍 한양대 교수는 신자유주의 경제 체재와 불교적 대안을 강의한다.

박해진 <신미 평전> 저자는 신미 스님의 훈민정음 창제, 최연 (사)해이라 이사장은 민중불교 운동의 성찰, 김광수 한양여대 교수는 중국불교의 개혁과 한국불교에 대해 강의를 진행한다.

박명기 한국교원대 교수는 불교를 통한 철학하기를,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는 마음과 사회는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은봉 광주대 교수는 선시로 읽는 마음과 깨달음의 세계를 강의한다.

정의평화불교연대는 “이번 강의를 통해 타자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는 동체대비심을 가진 ‘눈부처’를 양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의: (010)3725-4846 신성민 기자